

息山の 雜著에 나타난 批判精神考

權 泰 乙

〈目 次〉

I. 머리말

II. 본 말

1. 著述目的

2. 批判의 諸樣相

1) 學問面

첫째, 取理와 取象에 대한 批判

둘째, 自得과 私主에 대한 批判

세째, 爲己之學과 爲人之學에의

批判

2) 文學面

첫째, 理勝之文에 대한

편견을 批判

둘째, 作爲의 作詩文에 대한 批判

3) 治道面

첫째, 人材登用の 虛實을 批判

둘째, 人材培養의 失策을 批判

세째, 事大的 崇明思想을 批判

III. 맺는말

I. 머리말

필자는 息山(1664~1732, 名 李萬敷)의 性理哲學·實學思想·批判精神이 그의 문학(특히 散文)에 어떻게 수용되었으며, 또 그것들은 그의 문학적 효과에 어떤 기여를 해 왔는가에 대해 몇 년 간¹⁾ 고찰해 왔다. 본 논문 역시 그 일환이며 궁극적 목적은 批判精神을 통해 작가의식을 고찰하고 나아가 息山文學의 한 특질을 살피려는 데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먼저 雜著의 일반적 성격과 息山雜著의 성격을 일반화하고 본론에 들고자 한다. 雜著에 대하여,

雜著라는 것은 詞人이 지은 바의 雜文이다. 그 事體를 따라 命名하려해도 體格에 맞아 떨어지지 않는 까닭에 雜著라고 하였다. 그러나, 명칭은 비록 雜文이라 하였으나 그 義理에 근본하고 性情에서 발한 것이라 절로 醇一한 데 이

1) 첫 논문은 尙州農專大 論文集 第22輯(1982년)에 '息山李萬敷의 記研究'였다.

르는 道는 있다.²⁾

고 하였으니 “文章은 義理를 밝힘으로써 일체 세상에 쓰임을 위주로 한다”³⁾고 한 본지와 궤를 같이 하며 이는 곧 宋代 周敦頤 이래의 文以載道說과 맥을 잇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실 雜著는 어느 한 詩文의 형식이라 분류할 수는 없으나, 作家의 思想·哲學은 물론 문학적 재능이 어느 한 문학적 형식에 구애됨 없이 솔직 대담하게 나타나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息山雜著는 息山先生文集⁴⁾ 卷 11~16에 수록되었는데 총 50題로 述·戒·說·辨·策問·錄·記疑·書贈·議·論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계중에는 說理的이고 論理的인 면에 치우쳐 文學性이 희박한 것이 있음은 사실이나 전체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가의식은 批判精神을 기저로 하고 있으며, 특히 卷12에 수록된 10題의 錄文⁵⁾은 특정 지역·특정 신간에 있었던 사실의 개요를 적거나 日錄(日記)으로 서술해 문학적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음을 먼저 밝혀 둔다.

II. 본 말

1. 著述目的

대체로 雜著는 既存 著述이 범한 오류를 비판 정정하거나, 당대 붕우와 의 학문·정치·문학·세태 등에 관한 토론 중 길이 보존해 후세에 귀감이 될 자료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저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와 曹君鉞(名夏疇) 李仲淵(名潛, 星湖李瀾의 二兄) 澄名瀾, 星湖의 三兄) 이 忠原(현忠州)에 모여 論說한 바가 제법 많아 이에 그치지 않으나 다 기록할 수가 없다. 단지 그 한두 가지를 기록하여 뒷날의 참고 자료로 삼는다.⁶⁾

2) 徐帥曾, 文體明辯(卷46), 서울, 昨晨社, 1984, ‘雜著’條에서 按雜著者 詞人所著之雜文也 以其·事命名 不落體格 故謂之雜著 然稱名雖雜 而其本乎義理 發乎性情 則自有致一之道焉이라 하였음.

3) 上同, 卷之首 論文, 宋眞德秀曰文章以明義理 切世用爲主.

4) 이하는 文集이라고만 약칭함.

5) 10題에 다 錄이라고는 명명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錄文이라 할 수는 있다. 예로 ‘鶴城問答’ ‘中原講義’ 등 전자는, 星湖李瀾과의 60세 때 만난 日錄이며 후자는 26세 전 忠州에서 星湖의 형들과 講義하던 내용을 수록한 錄文이다.

6) 文集卷12, 雜著中 ‘中原講義’, 余與曹君鉞李仲淵澄叔 會于忠原, 所論說頗多 不止於此 而不能盡記 姑錄其一二 以資後日考焉이라 했고, 同卷의 ‘記錦水講日’에

고 하였다. 既存 著述에 대한 오류를 시정해 醇正한 것을 물려주려 한 자세는 물론 당대 학자로서, 문인으로서, 世祿之臣의 후예⁷⁾로서 風化 世敎에 일익을 담당하려 한 충정은, 독자로 하여금 진지하게 살다간 한 인격체와의 만남이란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息山の 雜著는, “정확성을 동경하는 과학 정신에 입각한 散文은 分析的이며 사실을 사실 그대로 고발하는 批判精神”⁸⁾이라 할 만하다.

2. 批判의 諸樣相

1) 學問面

학문면에 나타난 비판 정신도 다양하나 크게 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取理와 取象에 대한 비판

息山은 退溪死後 94년, 栗谷死後 80년만에 태어나 한국 性理學이 主理·主氣(退溪學派·栗谷學派)의 兩派로 치달던 초기⁹⁾에 불편부당한 학자적 양심으로 自家說을 확립함에 現象에서 本體를 추구하려 하였다.¹⁰⁾ 식산 당대의 가장 극렬한 토론의 대상이 된 것은 학문의 大頭腦¹¹⁾로 여겼던 理氣說로 退溪의 說을 互發說로 규정, 그 부당성을 栗谷이 거론한 이래 식산 당대에는 兩學派間의 논쟁이 쟁점이 되었던 것이다.

대저 이 마음이 지극히 고요할 때는 理와 氣가 渾然해 틈이 없으나 그것이

서도 記其大略 以資講於朋友間云爾이라 하였음.

- 7) 息山の 가계에 대하여는 前記한 論文 외에도 약술한 바 있거니와 식산 자신도 43세에 이미 영의정 崔錫鼎의 學薦을 받고 있으며(肅宗實錄卷43, 32年 3월) 66세에는 좌의정 李台佐의 추천(英祖實錄 卷23, 5年 6月)으로 水庫別提에 제수 되었으나 不就함.
- 8) 박철희, 문학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1979, p. 52.
- 9) 배종호, 한국 유학사, 서울, 연세대출판부, 1981, pp. 93~158참조, 퇴계 몰후 약 백년 후부터 경기지방을 중심으로 한 西人의 栗谷派와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한 南人의 退溪學派 사이에 <退溪의 이른바 四端理發而氣·之 七情氣發而理乘之란 理氣相須互發二岐說에 栗谷의 이른바 四七其히 氣發理乘이란 理氣之妙 즉 <理氣一途說>로 대립된 것이 兩學派間의 시비의 쟁점이었으며 息山은 영남의 퇴계학과에 속하면서도 퇴·을 그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으려 하였다.
- 10) 拙稿, 息山李萬敷의 記研究(Ⅱ), 상주농전대논문집 24, 1984에서 息山の 理氣觀을 밝힌바 있다.
- 11) 文集附錄上, 李瀾撰 行狀, 이익도 식산의 이 말을 인용하고 있음 ‘至於理氣之辨 乃曰此頭腦也 於此錯 無不錯’이라 인용하였던 식산은 이기론이 곧 우주·인간론에 일관되는 철학으로 보았던 것이다.

움직임에 미쳐 비로소 마음에 知覺이 생겨 道義上에서 知覺하기도 하도 形氣上에서 知覺하기도 한다. 道義上에서 知覺할 때인즉 發하는 바는 道義的인 것이요 形氣上에서 知覺할 때인즉 發하는 것은 形氣的인 것이다. 그 發處에 각기 주장하는 바가 不同한 것이지 어찌 理와 氣가 나란이 근본이 되기도 하고, 갈(並)아 發하며 활용이 되기도 하리오 老先生(註李滉)의 뜻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愚(나)가 이르는 理氣는 發處에서 分辨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未發時인 즉 分辨할 바도 없다는 것이다.

고, 하였으니 이는 퇴계의 本意를 옳게 파악치 못하고 極力 驅退하기만 일삼은 栗谷¹³⁾에 대한 간접적 비판인 동시에 退溪學派 자체 내에서도 퇴계가 兩本說(互發說)을 立論했다고 잘못 인식하여 믿는 까닭에 도리어 栗谷學派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하는 학자들의 모순을 입이 아프도록 변증하며 엄히 비판함을 볼 수 있다.¹⁴⁾ 더구나, “愚謂理氣 不可不辨於發處 而其未發時則無所分焉”이라 한 말은 곧 道義的인건 形氣的(肉身的)인건 드러난 곳에서 인식되어 질 수 있는 것으로, 현상을 통해 그 근본을 보려는 자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堪輿(風水說)說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元伯이 또 물기를, 堪輿說은 어떤가? 息山이 대답해, 그 이치가 알 수 있는 것을 좇아서 말한 즉 實하고 有用하며 알 수 없는 것을 좇아서 말한즉 虛하고 難明하다. 소위 알 수 있는 것이란 象을 취(取)하는 것뿐이다. 山水의 去來向背나 疎密精粗가 象아님이 없다. 理는 象에 寓居한 까닭에 象에서 그 氣의 聚散厚薄을 占치려 하면 이것인즉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있다.¹⁵⁾

12) 文集卷12, 雜著中 ‘鶴城問答’ 60세 때 이익과 만나 문답함. 그 속에는 공부진척, 師友選擇, 嶺南人心, 理氣論, 渾儀, 이익의 가정사(특히 이익의 三兄淑의 私諡 문제, 二兄潛의 碑文 문제) 등을 문답함.

“大抵此心 至靜之時 理氣渾然無間 及其動而知覺纔生 有覺於道義上 時有覺於形氣上 時覺於道義 則所發者 道義也 覺於形氣 則所發者 形氣也 其發處 名有所主之不同 豈是理與氣 並立爲根 迭發爲用者乎 老先生之意 決不然矣 愚謂理氣 不可不辨於發處 而其未發時 則無所分焉”

13) 文集卷 6, 答申文雨(8), “至於栗谷 則極力驅退於兩本之誤 而無少敬遜之意 所自爲說 張皇支離 又欲掩朱而自立 似欠和易 知道者氣象 未論義理之前已”

14) 續集卷 2, 答權台仲(1), “大抵近來吾黨見解 多於理氣太分處膠牾(註, 理氣互發 또는 兩本) 故妄不自量 每苦口力辨之不暇”

15) 文集卷 12, 雜著中 ‘記鴻亭講目’, 元伯(申弼貞의 字)은 성리학자로 역학에 뛰어나 遺逸로 主簿에 오른.

고 하여, 象(모습·현상)을 통해 그만한 모습을 짓게 한 理(이치·본체)를 推測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기에 현금의 堪輿說이 識緯書와 一例로 돌아감은,

聖人이 象을 취하는 까닭은 그 理를 봄이 가히 미루어 측량한 것인데 후세의 識緯書 역시 易을 의거해 지었거나 그 말이 荒誕하여 聖賢이不言한 바니 어찌 堪輿說과 더불어 術家說이 한 예가 되지 않으랴.¹⁶⁾

고, “術家에 있어 禍福 神怪의 說은 끝내 근거할 바가 없고 단지 사람들로 하여금 私慾을 북돋고 天理를 滅하게 할 뿐이니 마땅히 일체 축출하는 게 옳다”¹⁷⁾고 하였다. 이같은 비판의 대상은 일반인(특히 士大夫)¹⁸⁾은 물론 조정을 겨냥한 비판¹⁹⁾일 수 있다.

이상의 예에서 독자는, 한국 理氣哲學이 英正朝 이후로 空論이란 비판을 받게 될 때²⁰⁾에도 息山은 理氣論을 학문의 대두체로 확인했을 뿐 아니라 空論을 배제하였고 朝廷은 물론 士大夫에서 庶人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理를 取해 風水說을 믿을 때도 그는 荒誕함을 축출하려고 하였으니, 이는 곧 現象(氣·보이는 것)을 통해 本體(理·숨겨진 것)를 파악하려는 과학적·합리적 사고를 지녔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實心思想을 주장한 작자(息山)²¹⁾와의 직접적 만남에서 독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날

16) 文集卷 12, 上同.

17) 上同.

18) 文集卷 15, 喪祭雜錄, “古之改葬者 有所不得已也 今人惑於風水之說 無故改葬者多 其甚者 朝遷暮徙 使祖先體魂 不得安於地中 此乃不仁之甚者也.

19) 肅宗實錄卷 48, 36年 9月, 京居林方禎者 上疏言 崇陵白虎低微 風水所忌 宜加補土 上命右議政金昌集 禮曹參判趙仁 率地師奉審 昌集等 奉審後入對 指陳圖形曰此巽方也 白虎低 略見漢江一曲 乙方亦露見野色 諸地師山論 以此爲庇 皆言補築宜當矣 上曰林方禎之疏 予未信其必然 使之奉審矣 所見如此 則巽乙兩方 補土可也라 하였으니 인위적으로 風水를 조정함은 息山의 風水說과는 본지가 다르다.

20) 韓泊肋, 星湖李瀾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3, p.35에서 星湖先生全集卷24, 答安百順(癸酉)의 “四七(理氣人心道心)論은 元來緊切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것이 本國(朝鮮)에서만 크게 과장되어 그 실이 區區하니 達理者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란 말과 卷31, 答禹大來(辛巳)등을 예로 들어 이익이 理氣說을 만년에는 간요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21) 拙稿, 息山 李萬數의 地行錄研究, (영남어문학 제 14 집, 1987)은 息山의 實心思想을 중심으로 한 연구임. 息山은 忠信 敬篤 孝悌등의 일을 實學이라 하고 “實學孰則實心完 苟無實心 所得何能久爲已有”(文集卷 11, 書贈柳厲仲)이라 하였음.

카로운 비판을 통해 이지적인 지성인을 재발견하는 기쁨이라 할 수 있다.

둘째, 自得과 私主에 대한 비판

息山 당대는 한마디로 학문적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였다. 그 첫째 이유는 宋代의 程朱說을 맹신할 정도였고 둘째는 학문이 당쟁의 희생물화되었기 때문이다. 自得하는 학문적 즐거움으로 自家說을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尹鑄는 斯文亂賊으로 지목되어 처형(1680)당했고 朴世堂도 尤菴를 배척하다 同列에 오르는가 하면²²⁾ 崔錫鼎도 禮記類編을 지어 朱子에게得罪했다 비난받았으며 그 책에 서문을 쓴 尹拯도 같은 죄목으로 西人중 老論의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²⁴⁾ 이같은 학문적 분위기에서 식산 당대의 학자들은 크게, 程朱의 이론에 맹종하는 類, (특히 斯文亂賊으로 몰아 黨利를 일삼는 類) 程朱의 이론을 무시함으로 自高然하는 類,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自得하는 맛으로 自家說을 확립한 類²⁵⁾로 대별할 수 있겠다. 첫번째 類는 治道面에서 거론하려니와 후자의 두 類에 대한 息山の 비판적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息山은 26세 전에 星湖 李瀼의 親兄이자 스승이었던 李潛(星湖二兄·字仲淵·號西山), 李瀾(字澄叔·號玉洞)²⁶⁾ 曹夏疇(字君敍)등과 친밀하여 講磨하였는데 대체로 이들은 학문의 自得之味를 더 주장하는 편이어서,

朱子가 經傳을 註하니 뒤의 학자가 가지에서 가지가, 앞에서 앞이 생겨 경전의 본뜻이 도리어 가리워졌으니 朱子가 연(啓)〈註 宋末의 학자들이 末을 좇고

22) 金萬圭, 朝鮮朝의 政治思想研究, 仁荷大出版部, 1982, pp. 235~241, 李乙浩, 丁茶山の 生涯와 思想, 博英社, 1982, p. 14 참조.

23) 肅宗實錄卷 57, 42年 三月 “太學儒生金純行等五十六人 上疏略曰… 乃者有一二臣(即指朴世堂 崔錫鼎 兩人) 著書毀朱子 殿下雖罪其人棄其書 亦未嘗斷自宸衷…故相臣崔錫鼎記類編中 改註庸學 極其妄悖 而孫同其講磨 托名卷首 則其得罪 朱子 又莫大焉”

24) 肅宗實錄補闕正誤卷 46, 34年 3月, “三月甲戌侍講官李觀命 疏辨晝講時 檢討官任守幹論進講冊子之失 上批以語欠和平責之…賊鑄誣朱子之罪 宋時烈既不鳴鼓於改註中庸之初 而斷之收司禮案之後 則未知其眞得天討之正 而時烈之動 稱朱子自任一治者 亦未知其果不爲南越黃屋之歸 至如朴世堂之思辨緣 不過爲打乖伎倆崔錫鼎之禮記類編 亦歸於弊筭自珍者 則黨人之不但斥其僭妄而傳會文致 必歸之於背朱子之科者 已非本情 蓋其意隱然處時烈於朱夫子嫡傳 而直驅入於異端邪說 眞若有洪水猛獸之禍 豈不可笑”

25) 文集卷 7, 答吳致重, “且如千仞壁上 有一路 左足踏陸時 右足臨壑 右足踏陸時 左足臨壑 一舉足而生死判焉 甚可畏也 吾輩存舍存亡 正如此 所謂紅爐占雪 非所收擬也”

26) 韓祐勛, 星湖李瀼研究, 서울대출판부, 1983, pp. 11~13 참조.

實어 없게 된 계기 마련>게 아니고 무엇인가?

고, 曹夏疇가 朱子는 文勝의 폐단을 남겼다고 비판한데 대해,

공과 내가 능히 馬襟牛裾(무식함)을 면할 수 있는 것도 또한 그의 힘이다. 공이(주자의 註釋을) 다 폐하려 한즉 높으긴 높으나 생각하면 그患이 文勝에만 그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고, 自高然하는 태도를 비판하였으며 李潛의

행동은 依古치 아니해도 義에 맞고 말은 襲前치 아니해도 理致에 합당한즉 이것이 곧 君子이다. 하필이면 程子에게 이 행동이 있었다. 朱子에게 이 말이 있었다고 하라

는 말에 대해 息山은

행동은 의리에 맞고 말이 이치에 합당한즉 좋긴하나 만약 평소에 義理를 탐지도 않아 義라고 한 것이 義가 아니며 理라고 한 것이 理가 아니면 어찌 하겠는가?

고 반문하였다. 또한 李濂가

두 형(註 息山과 仲淵)의 말이 지나치게 높은 것같으나, 독서에 만약 한갓 古人の 說만 믿어 自得하는 맛이 없은즉 또한 實得은 아니다.

고 한 말에 대해서도 息山은

이 말이 진실로 옳다. 다만 독서할 때 먼저 不信하는 마음으로 私主를 삼고 正義를 보는 데 미치지도 못하고서 私意로 천착하여 문득 自得이라 생각하는 이 같은 것은 크게 本原(학문상)의 병이 되니 義를 봄이 온당코 그르고는 말할 나위도 없다²⁷⁾

27) 위의 세 예문은 다 文集卷 12, 中原講義, “君敍曰朱子註經傳 而後之學者 枝生枝葉生葉 經傳本旨 反晦 非朱子所啓而何 曰朱子發揮經傳 折衷群說 聖賢之道大明於世 公與吾免馬襟牛裾 亦其力也 公欲盡廢 高則高矣 竊恐其患 不止文勝已也”, “仲淵曰行不依古而合於義 言不襲前而當於理 則是乃君子也 何必曰程子有此行 朱子有此說 曰行合義言當理 則可 若不素講義理 所謂義者非義 所謂理者非理 則奈何”, 澄叔曰二兄之言 似過高 若徒信古人之說 無自得之味 則亦非實得也曰此說 固是 但讀書時 先似不信之心 作私主 正義未及見 而以私意穿鑿 遽以爲自得如此者 大爲本原之病 見義當否 不暇論也”

고, 私主의 결과를 自得, 私意의 결과를 實得으로 오인하는 학자적 태도를
 은유한 가운데서도 嚴斥하였다. 이는 助長의 病임을

무엇을 用功이라 하는가? 학자의 기대하는 바가 비록 遠大라 하나 그 用功
 인즉 옹당히 순서를 좇아 漸進하여야지 躐等(단계를 뛰어넘음)해서는 안 된다.
 독서함에 經籍을 싫어하고 異書를 좋아하며, 造行에 平近함을 소홀히 하고 隱
 怪함을 힘쓰며 言語에 忠信을 버리고 誇大를 좋아하는 것은 다 助長의 병이다.
 助長이란 私意니 私意를 써서 능히 實學을 이룬 자는 아직 있지 않다.²⁸⁾

고 명백히 밝혔다. 實心이 없는 自高的 태도로 私主를 삼고 私意를 實得
 으로 자처하는 학자들에 대한 엄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仲淵·澄
 叔 등의 태도가 곧 自高然한 태도가 아님은 이들이 星湖의 진보적 학문태
 도에 영향을 입었음은 물론 당시 程朱學에 盲從하는 학자들에게는 큰 자
 극을 주었을 것도 자명하다. 한편 息山の 태도가 中庸의 태도임은 사실이
 나, 前人의 업적 위에서 自家說을 확립해 감에는 꺾을 수 없는 志操와 自
 負心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息山の 天道有敬說은 前人未發의 學說
²⁹⁾로 당시 朝廷이나 士友間에는 일대충격을 준 학설이다.³⁰⁾ 이 說은 中庸
 章句(20章)에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란 말 이래로 天道는 誠인
 데 人道는 誠하려고 하는데 있다고 보았고 誠에 이르는 일로 “敬以直內”
 (周易坤卦文言)나 主一無適(程伊川)이니, “誠이란 하늘의 道요 敬이란
 人事의 本이다. 敬道가 이루어진 즉 誠이요, 天이다.”(誠者 天之道 敬者 人
 事之本 敬道之成 則誠而天矣, 性理大全卷 47. 學五)³¹⁾고 하였으며 “敬은
 곧 誠에의 入門”³²⁾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기에 息山은,

28) 文集卷 11, 書贈柳厲仲, “何謂用功 學者所期 雖曰遠大 其用功則當循序漸進 不可躐等 讀書也 厭經籍而喜異書 造行也 忽乎近而務隱怪 言語也 舍忠信而好誇大 皆助長之病者也 助長者私意也 未有用私意而能成實學者也”

29) 文集附錄上, 丁範朝撰 樹銘, 天道有敬之說에 대해 “其說出前言意之外”라 하였음.

30) 文集卷 6, 申文甫潛(5), “天道有敬之說 曾與一朋友爭論 終未歸一 當時自 朝廷至士友間 聞者笑斥 愚見至如南嶽公(註李玄逸) 著說非之 然執偏之性 終不能轉得其後 南嶽歸錦水後 往拜 言及此 略有云云 南嶽以鄙說爲是 自言覺前日之未透云云” 퇴계학의 중진이었던 李玄逸과의 토론에서 자기설을 인정받은 것은 息山의 학문의 수준을 말하며 이해(43세)에 영의정 최석정의 學薦을 받기도 하였다.

31) 金泰泳, 韓儒學에서의 誠敬思想(I), 충북대논문집 제 24 집, 1982, p. 31 再引.

32) 柳正基, 儒道思想論集, 常知社, 1977, p. 118.

(公의 簡記中에도 역시 天道有敬說은 그르다고 했다.) (葛菴)말하기를, 차례로 상세히 말하라. (息山) 말하기를, 天人은 一理이니 聖人은 사람이면서 天者다. 堯舜급 이하 못 聖人은 不敬함이 있지 아니하니 내 생각에는 하늘과 더불어 다름이 없다고 본다. 대개 敬은 誠하는 所以(까닭)이니 誠은 敬 아님이 없는데 어찌 聖人의 誠에만 유독 敬이 있고 天道의 誠에는 도리어 敬이 없겠는가? 만일 天道는 無敬이라 하면 이는 敬없는 誠이 되니 못 성인의 敬은 天과 같지 않은(天을 본받지 않은) 곳이 있게 된다. 어찌 聖인이 하늘을 본받을 것인가?

비록 前人의 明言의 論이 없다고 하나 理致로 추측하면 거의 내 마음의 체험 가운데서 默識할 수 있을 것이다.³³⁾

고, 天道無敬說을 비판하고 自家說을 立說하였다. 天人一을 주장하며, 즉 天道에 有誠인 까닭에 人道에 有誠하려는 노력을 인정하면서 人道에 有敬인데 어찌 天道에는 無敬이란 수 있겠는가는 반문은, 곧 현상인 人道를 보고 本體인 天道를 추측해 파악하며 天人合에 이르려는 實心思想의 소유자가 지닌 誠敬의 자세였다. “한국의 성리학자 중 退溪는 敬에 치우쳤고 栗谷은 誠에 치우쳤던 것이다.”³⁴⁾고 본 견해가 옳다면 息山은 또한 退栗의 그 어느 쪽으로도 편중되지 않는 宇宙觀·人生觀을 확립해 갔다고도 할 수 있다.

요약하면, 私主·私意로 自得·實得을 운위하는 일은 自高者에 불과한 것이며 實學을 하는 자세는 아님을 비판하였다. 더구나, 天人合에 이르는 이상적 인간형은 바로 體天함에 일호라의 虛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기에 天과 人의 인식에서 조차도 二而一의 妙를 天道有敬說로 立說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비록 說理的이고 論理的인 息山の 잡서이지만 이 글을 통해 다시 한 번 우주와 인간의 참모습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고 할 수도 있다.

세째, 爲己之學과 爲人之學에의 비판

息山은 君子儒와 小人儒를 대비시켜 小人儒를 배척한 바가 많고³⁵⁾ 爲己

33) 文集卷 12, 記錦水講問, “(公簡記中 亦非天道有敬之說) 曰第詳言之 曰天人一理 而聖人人而天者也 自堯欽以下群聖人 無有不敬 愚意以爲與天無異 蓋敬所以爲誠而誠無不敬 豈聖人之誠 獨有敬而天道之誠 反無敬乎若謂天道無敬 是無敬之誠 而群聖人敬者 爲無不似天處 豈聖人體天意乎 雖無前人之明言의 論 然以理測之 庶可默識於吾心體驗中矣.

34) 柳正基, 앞의 책, p. 118.

35) 李萬敷, 志書, 卷 4, 5에도 君子小人 및 君子儒 小人儒에 대해 네 번이나 언급

爲人의 分別을, “아는 것을 안다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하는 것은 爲己요 아는 것을 안다하고 모르는 것도 안다하고 하는 것은 爲人이다”³⁶⁾고 하였으니 역시 爲己之學과 爲人之學 역시 實心과 無實心에서 구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은 實心에 대해,

왜 務實하라 이르는가? 요새 학자는 實에 힘쓰지 아니하고 외면을 꾸미는 사람이 많아서다. 이제 만땅히 日用人事에 나아가 그 理를 구해 몸소 행해야지, 만일 人事의 學에도 이르지 못하고 먼저 高遠한 일이나 구한다면 끝내 實得할 바가 없다. 저 말에 忠信하고 行動에 篤敬하며 집에 들어서는 孝하고 나가서는 義하는 일들이 곧 實學이다. 實學이 익숙해진즉 實心이 점점 완비된다. 실로 實心이 없다면 얻은 바인들 어찌 능히 오래 지닐 수 있으랴.³⁷⁾

라고 하였으니, 實學은 곧 實心の 완비를 위한 부단한 인간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息山의 實學은 곧 實心實學이라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이와 같은 實心實學은 息山으로 하여금 洙泗學的 修己治人의 學에 귀착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게 하였고³⁸⁾ 이런 사상은 李漢에게도 나타나 “洙泗(孔子學)를 버리고 아무데도 갈 곳이 없다”³⁹⁾고 까지 그는 窮經實學을 동경하였던 것이다.

하였는데, 君子儒와 小人儒의 구별은 實과 不實에 있다고 “心之實與不實於何辨之 不過爲己爲人之間也”(卷 4)라고 하여 “爲己之學일 때 實心이 있고 爲人之學일 땐 實心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36) 李萬數, 志書卷 5,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者 爲己者也 知之爲知之 不知亦以爲知者 爲人者夜”.

37) 文集卷 11, 書贈柳厲仲, “何謂務實 今之學者 不務實修飾外面者多 今宜就日用人事 求其理而體行之 若人事之學未至 先救高遠之事 終無所實得也 如言忠信行篤 入孝出弟等事 乃實學也 實學熟則實心漸完 苟無實心 所得何能久爲己有”.

38) 息山의 학문은 洙泗學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많으나 그중 息山先生讀書日記(1721·58세, 7월 13일) “三代以前 君統民 民承君 三代以後 君自君 民自民 無或乎治少而亂多也”, 文集卷 12, 露陰山房錄, 越成之가 程朱의 語錄을 사용해야 理勝之文이 되리라 보는 견해에 대해 “曰(註息山)語錄 是當是語與我東語訓 似未盡合矣 曰(註成之)不用語錄文字 則人謂非理勝之文 如何曰 論語大學中庸孟子等書 豈非理勝之文乎”라고 朱子 이전에 理勝之文에 四書 등이 있었다고 했고, 文集卷 12, 露陰山房續錄에서는 成仲舉가 崔錫鼎의 禮記類編이 朱子章句大學을 개정해 저술한 것을 斯文의 害로 단정하자 “天下之義理無窮 凡人之解見不同”한 까닭에 중국에도 朱子의 說과 상반되는 설이 있고 조선에도 초기(심리학으로 가는 명종 전)에는 李彦迪같은 분이 朱子와 異說을 내기도 하였다는 사실의 지적은 곧 孔孟學에 대한 해석은 누구나 자유로울 수 있는 것으로 洙泗學을 근거로 삼자는 증거이기도 하다.

39) 韓伯勗, 星湖李漢研究, pp. 36~37 참조.

息山은 實心實學으로써 爲己之學과 爲人之學 즉 君子(儒)와 小人(儒)의 일을 명석하게 분별하여 비판하였으니,

종을 시켜 벽을 뚫고 굵은 굴뚝을 만들어 장차 술을 태워 책을 보려하니 어떤이가 무엇 때문에 이같이 하느냐고 물었다. (息山)曰 방에 기름이 없어서이다. (或)曰 이는 비록 방을 밝힐 수 있으나 눈이 매워 눈물이 나고 옷이 쉽게 검어져 이익은 적고 손해는 많을 것이다. 曰 무릇 世人이 말하는 바 이익이란 또 어느것이 그 가운데 해가 없으랴? 소나무는 얻기 쉽고 심히 절실하니 만일 굴뚝을 그 머리쪽은 높고 그 입구는 오목하게 하면 또한 매워서 눈물흘릴지경에 이르지 않는다. 옷이 검어지는 것같은 거야 마음쓸 것 없다. 누가, 흰것이 검어지지도 않고 검은 것이 다시 희어질 줄을 알랴.⁴⁰⁾

고 하였다. 이는 학자로서 옷이 검어질 것은 알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모르니, 작은 것은 알고 큰 것을 모르는, 소위 小人儒에 대한 신랄한 비판임을 볼 수 있다. 더구나 息山代에 서양의 벽난로같은 원리를 원용하고 있는 과학성도 독자에게는 신기감을 더한다 할 수 있다. 이 글 속에도 實心은 곧 小人和 君子를 판별나게 하였거니와,

이제 사람이 있어 그 말은 마치 道를 아는 것같고 그 행동은 君子인 것 같으나 實心이 없은즉 허위다. 거짓을 좇아 거짓을 본받은 즉 이것이 僞誣가 된다. 거짓으로써 거짓을 좇고 거짓을 보탠즉 거짓이 轉增한다. 말은 과장되고 행동은 자궁하며 움직이면 조금하고 조용해도 지달으며 높은 걸 엿보고 가까이 우먼서도 먼것을 살핀은 다 實의 病이 심한 것이다. 實은 마땅히 힘써야 하는 것이다. 하늘은 實이 있어 하늘이 되고, 땅은 實이 있어 땅이 되며, 삶은 實이 있어 사람이 되는 것이니 가히 경계치 않으랴.⁴¹⁾

고 하여 君子 小人에게만 한정되는 實(心)이 아니라 天地人 三才에 일관하는 實(心)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상대적으로 無實을 비판하고 있음을 본다.

40) 文集卷 12, 華陰日錄, “命奴鑿壁造曲窟將以燃松看書 或問何以爲此 曰坐無油也 曰此雖照室 眼致澁疾 衣易染緇 益少害多矣 曰凡世人 所謂益者 又孰無害於其中乎 松者取之不難 用知甚切 如使窟也 高其腦門其口 亦不至於澁誤 若衣之緇則無傷也 孰知白之不緇緇之復白耶”.

41) 文集卷 11, 傍實之戒贈李濟卿, “今有人焉 其言若知道其行若君子 然無實心 則僞也 從僞而效僞 則是以僞誣 以僞趨爲資僞 僞轉增也 言誇行矜 動燥靜馳 卑窺高近踞遠 皆實之病 甚矣 實之宜務也 天有實爲天者 地有實爲地者 人有實爲人者 可不戒哉”.

요약하면 爲己之學과 爲人之學은 곧 君子儒와 小人儒의 구별을 짓게 하며 그와 같은 학문적 실효는 實(心)과 無實의 차이에서 결정되는 것임을 판단, 비판하였다고 본다.

2) 文學面

문학면에서는 간략히 理勝之文에 대한 편견과 作爲的 作詩文에 대한 비판을 살피고자 한다.⁴²⁾

첫째, 理勝之文에 대한 편견을 비판

“理는 곧 道라 할 수 있으니 理勝의 文은 古文運動 이후 文以載道觀의 근간이 된 창작 태도라 할 수 있다.”⁴³⁾ 이 理勝文에 대하여 퇴계 이후로 程朱 일변도의 性理學으로 치닫자 선비들은 程朱의 語錄을 사용해야만 理勝의 文이 되고 載道文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지경에 이르러, 息山은 論語大學 中庸 孟子 등의 四書야말로 醇正한 道文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程朱의 어록을 굳이 좇을 필요가 없음을, “語錄은 당시의 말이라 우리나라의 語訓과 흡사 다 합치되지는 않은 것 같다.”⁴⁴⁾고 완곡히 그 전용의 부당성을 지적, 비판하였다. 특히 理勝文의 본을 四書로 지적한 것을 末에 흐르지 않고 自得之味로 實得하려는 자세에 기인된 것으로 息山の 학문태도가 洙泗學의 임은 전술한 바 있다. 이는 곧 文學 創作에 있어서도 自高的 態度에서가 아니라 實心을 중시하는 實學精神에 바탕을 둔 창작 태도임을 알 수 있다.

둘째, 作爲的 作詩文에 대한 비판

文章은 簡達 理勝을 귀히 여기고 詩는 冲擔 和平을 귀히 여기는데도 李潛은 일부러 澁僻함에 힘쓰를 비판하자, 李潛은 誥訓의 文章됨과 雅頌의 詩됨을 들어 澁僻한 詩文體가 옛날에도 있었다고 반론이었다. 이에 대해 四書는 明白簡當한 글의 표본이라 반론을 제기하고,

誥訓 雅頌은 단지 이것들이 당시의 語勢가 이같아서 오늘날 사람으로서 보는 까닭에 간단하면서도 뜻이 깊고 읽기에 어렵지 만약 당시 사람으로 보게 하면 만드시 그렇지 않을 것이다.⁴⁵⁾

42) 息山の 文學觀 考察은 曉星女大, 國文學研究(제 10 집), 1987년에 발표한 바가 있어 여기서는 간략히 다룬다.

43) 拙稿, 息山李萬數의 文學觀考察, 曉大國文學研究(제 10 집), 1987, p. 57.

44) 文集卷 12, 露陰山房錄, “曰語錄 是當時語與我東語訓 似未盡合矣”라 하였다. 註 38)에서도 예문을 들었음.

45) 文集卷 12, 中原講義, “曰語訓雅頌 只是當時於勢如此 以今人看 故簡粵難讀 若

고 하였다. 이는 곧 語訓이나 雅頌같이 難解한 詩文은 원래 작자가 作爲的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言語의 變遷으로 인한 결과임을 주장, 李潛의 一體格論을 비판하였다. 이같은 創作觀은 宋의 陳騭의 修辭의 原則(自然·貴簡·淺俗)과도 상통함을 알 수 있다.⁴⁶⁾ 특히 淺俗은 民間之通語·淺語·常語를 지칭하는 것으로 息山도 文章은 簡達하고 理勝하기 위해서는 當時語 즉 각 시대가 지닌 보편적 常語를 필요로 한다고 본 것은 許筠이 중국 大家들의 글이 모두 當世之常語라 본⁴⁷⁾ 것과도 상통함이 있다.

또한 作爲的인 作詩文 태도로 一韻多押함을 無用한 일이라고 비판하였다. 詩芸가 뛰어난 車天輅는 日本通信使로 나가 四千餘首를 지었다⁴⁸⁾ 하거니와 多作 또는 한 韻으로의 多押은 詩才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일지 모르나 한낱 정신을 피폐케 할 뿐, 자연스럽게 창작되는 詩를 식산은 귀히 여겨 작자의 感興이 일 때 事物과의 만남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즉 큰 나무를 보면 計較하는 마음이 일듯하는 詩⁴⁹⁾를 귀히 여겼다. 이는 곧 退溪의 興來情適已難禁이나 朱子の 數句適懷亦不妨이라 한⁵⁰⁾ 詩作觀과도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息山の 이같은 詩作觀은 그가 詩人이기 전에 學者였던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作詩文에서도 實心이 없는 人爲나 作爲는 實得이라 볼 수 없다는 息山の 비판은 긍정할 만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상에 살핀 文學面에 나타난 비판 내지 비판정신 역시 학문에서와 마찬가지로 實心을 바탕으로 詩文의 내용을 생각하고 詩文의 作法을 생각하고 있는데서 또 한 번 독자는 그의 詩文의 성격을 상상하고 그 文學觀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3) 治道面

治道面에서는 人材登用の 虛實·人材培養의 失策·事大的 崇明思想·朋黨의 弊害 등에 대한 비판을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첫째, 人材登用の 虛實을 批判

使當時人看 則必不然也”.

46) 譚全基, 文則研究, 香港, 問學社, 1978, pp. 13~16 참조.

47) 李文奎, 許筠散文學研究, 서울, 三知院, 1986, p. 43 참조.

48) 李晔光, 南晚星譯, 芝峰類說(下), 서울, 乙酉文化社, 1978, p. 213.

49) 文集卷 12, 華陰日錄抄, “李令(李衡祥)書言得一強韻賦四十餘首 一韻多押 將何用也 徒幣精神而已耳 余岑寂中 時有感興之作 心既在此 遇事輒思詩句 明道先生見大木 起計較之心 遂以爲戒 正爲此也”.

50) 王更圭·李章佑譯, 退溪詩學, 서울 퇴계학연구원, 1981, p. 13 참조.

나라에서 取人하는 제도가 科擧制다. 그러나 인재 등용의 길이 옛날⁵¹⁾과는 달라 文詞爲主의 과거제 하나밖에 없어 息山은 文芸로 取士하여 實學(주로 小學·大學·論語·孟子·中庸등의 五經)을 兼課하는 제도를 주장한 바 있거니와⁵²⁾ 星湖도 科薦合一을 주장한 바 있다.⁵³⁾ 과거제의 모순을 지적하면서도 제도를 폐할 수 없음을 事君의 길로 유일한 까닭이며 또 과거에 응하지 않음은 학문에 전심할 각오여야 하는데도 廢科者는 實學(주로 洙泗學을 지칭)에 힘쓰지 않고 끝내 歸着할 바가 없으며 赴擧者 역시

近世는 이름으로 取士하여 선비는 實得이 없고 많은 선비가 人心(私慾)을 싫어하지 않는 까닭에 사람들이 道學을 傲蔑함이 더욱 심하다. 그 오멸하는 자와 더불어 오멸을 부른 자가 응당 그 죄를 兩分해야 한다.⁵⁴⁾

고 하였으니, 비판의 대상은 이름만으로 占科한 實得없는 선비, 이름만으로 인재를 등용한 조정, 廢擧하고도 實學에 등한한 선비 등이다. 靑衿 革帶로 걸이나 修飾하고 글이나 찾아 구절을 따며 요행이 榮名할 것을 꾀하는 선비⁵⁵⁾의 타락으로 道學이 오멸된 실상은 조정의 取人이 한갓 이름으로써 행해지는데 있다는 언외의 말에 날카로운 대조정에의 비판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일찌기 息山은, 勢가 重한 자는 얻고 재주가 있는 자는 잃으며 재물이 많은 자는 합격하고 文章이 능한 자가 굴복하는 科擧制의 타락성에 환멸을 느끼고 과거를 포기하였으며,⁵⁶⁾ 實錄에서도 科場에서 舉子끼리 서로 짓밟아 死亡하는 경우⁵⁷⁾를 폭로하고 있는가 하면 息山도 上庭下稟廢擧書에서 科場의 풍경을 廉恥不顧死生不計하며 먼저 다투어 나가다가 심지어 隕命者가 생김을 폭로하기도 하였다.

51) 文集卷 4, 答瓶窩(3), “...出處之義 本非一道 自有科擧出身之路 與草野招延之上 其義尤不同於兩程事 可見”이라 하여 과거제와 초청제가 있었다 함.

52) 續集卷 4, 答趙時晦는 趙顯命의 字로 식산 67세시 경상관찰사였고 뒤에 영의정에 오른 분으로 탕평책을 주장, 小論系에 속하면서도 息山과는 학문·정사 등에 걸쳐 광범위한 토론 특히 자문을 받았음.

53) 韓汝勛, 星湖李瀼 研究, pp. 128~137 참조.

54) 文集卷 12, 露陰山房錄, “近世以名取士 士無實得 多不厭人心 故人之傲蔑道學益甚 其傲蔑者與致傲蔑者 當兩分其罪”.

55) 文集卷 11, 策問六首, “以言乎士子 則靑衿革帶 修飾外面 而尋章摘句 倖圖榮名”

56) 文集卷 3, 上庭下稟廢擧書, “且勢重者得之 而有才者失焉 財多者中之 而能文者屈焉”.

57) 肅宗實錄卷 48, 36年 7月, “京畿儒生轉重弼等 上疏言每當科場 輒多舉子蹂躪死亡之患 乞於京畿 別設鄉識...”.

한편은 등용된 인재를 用人할 줄 몰라, 草野에서 기용된 지 일년 미만에 亞卿에 오르므로 세상에서는 盜名者로 힐난하는데 대해 息山은 조정의 用人이 漸進的으로 못한 까닭이라고 조정을 비판함을 볼 수 있다.⁵⁸⁾ 당시 는 조정의 賞罰無常으로 인한 用人의 과실 탓⁵⁹⁾ 아니라도,

비록 스스로 道있다는 선비로도 만약 實에 지나친 名으로 돌리면 겉으로 사양하면서 속으로 환영하며 부끄럽게 생각지 아니한다.…… 이로써 말하면 道가 있는 선비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실로 부끄러울 바 없는 것이 진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비록 한 터럭끝이라도 分이 아닌데 얻었다면 어찌 잠시인들 머무랴. 근세에 名實이 같지 않은 자 더욱 많으니 통탄할 일인지.⁶⁰⁾

名實이 不同한 자가 많음을 개탄함도 실은 날카로운 僞善者에 대한 비판임을 간과할 수 없다.

둘째 人材培養의 失策을 批判

前項과 用人이란 면에서 근사하나 특히 인재를 양성하는 道를 설파한 것으로 別項을 설정한다.

섬돌 앞 해당화가 막 피어 자주색 윤끼나는 꽃이 사랑스럽다. 옆에는 몇 떨기 국화가 오랜 가뭄에 가지나 잎이 초췌하다. 인정이 예사로 다 가까운 것은 취하고 먼 것은 소홀히 하니 곧 이로써 보면, 누가 해당화를 중히 여기고 국화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랴. 무릇 군자는 德을 품고도 드러내지 않고 누함에 처하며 鄙夫 凡流가 만일 고관이 되어 일시에 榮寵이 있는즉 사람들이 쫓고 버림이 또 무엇이 저 꽃을 보는 것과 다르랴. 이에 종을 시켜 날로 물주니 국화 떨기가 점점 소생하고 무성하여 서리를 이기고 오염함을 토하니 그 때가 있을 을 알겠도다. 나라가 인재를 배양함을 어찌 이에서 보지 않으랴.⁶¹⁾

58) 文集卷 12, 中原講義에서 葛菴李玄逸이 초야에서 기용되어 일년 미만에 참판에 오른 것을 두고 초야에서 葛菴이 盜名者다, 조정의 用人之過다로 의논이 분분했던 것 같다.

59) 肅宗實錄卷 40, 30年, 11月, “乙巳司諫崔啓翁正言朴鳳齡等 上劄曰黨議構潰而用舍失中 飢饉存臻而微歛無已奢侈愈肆 貪風大振 前後寵擢 率多私昵…”.

60) 文集卷 11, 名設(원문생략).

61) 文集卷 12, 蟾峰日錄抄, “階上海棠正開 紫膩可愛 傍有數菊 久旱 枝葉樵悴 人情例多 取近而忽遠 即此觀之 孰不重棠而輕菊也 凡君子抱德不顯處于陋巷 而鄙夫凡流 若紆青拖紫 榮寵一時則人之趨舍 亦何以異 夫看花乎 於是命奚日澆菊叢漸看蘇茂 凌霜吐艷 會有其時 國家培養人材蓋觀於是哉”.

고 하였다. 윗글의 개요를 도식화하면,

花— $\left\{ \begin{array}{l} \text{海棠花正開} \rightarrow \text{取近} \cdot \text{重棠} \rightarrow \text{可愛} = \text{鄙夫凡流} \rightarrow \text{榮寵} \rightarrow \text{時人之趨} \\ \text{菊花未開} \rightarrow \text{忽遠} \cdot \text{輕菊} \rightarrow \text{憔悴} = \text{君子} \rightarrow \text{處陋巷} \rightarrow \text{人之舍} \end{array} \right\}$ 人—

위와 같은데 →표는 서술상의 순서 표시다. 花—, 人—이란 花와 人의 본질은 —이란 뜻이다. 즉 해당화는 국화보다 일찍 피어 사랑을 받고 국화는 해당화보다 늦게 피므로 홀대당하기 쉬운 것은 人情탓인지 꽃의 본질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鄙夫나 君子的 경우도 꽃의 경우와 다를 게 없다.

이 글은 海棠花와 菊花, 鄙夫와 君子 사이에 對照를 이루고, 海棠花와 鄙夫, 菊花와 君子 사이에 同質的인 對比를 이루고 있어 독자에게 구성 구조의미를 느끼게 하며 작자의 심정을 쉽게 간파할 수 있게 한다. ‘날로 물주니 국화 떨기가 점점 소생하고 무성하여 서리를 이기고 요염함을 토하니 그 때가 있음을 알겠도다’고 한 말에 주제의식은 내포되어 있다. 가을을 기다려 즉 遠大之期로 국화를 가꾸고 인재 배양에 주력하지 못하는 데 작계는 국화, 크지는 국가적 인재를 방치하는 실책이 있다는 비판이다. 이같은 비판은 그들과 한발에서 시들어가는 국화처럼 방치된 당시 모순되고 피폐한 사회상을 고발하고 비판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⁶²⁾ 息山은 평생 학문에 전념하여 山林에 처해 있었으나 國家 장래에 대한 걱정은 남에게 뒤지지 않았으며⁶³⁾ 명예를 구하지 아니해도 勇往하는 기상이 있고 世俗의 일을 끊지 않았으나 지조를 빼기 어려움이 있었다.⁶⁴⁾ 또한 季父 東

62) 息山은 당대 손꼽히던 家門에서 태어나 유독 자신만이 벼슬을 버리고 학문에 전념하여 43세에 이미 학문으로 천거되었으나 당쟁으로 기용되지 못하였고 사림의 중망을 받았으나 학문의 독자성 때문에 老論은 물론 南人系에서도 심리적 압박과 위협을 받았으나 지조를 굽히지 않고 66세 (별세 3년전)에 다시 벼슬이 내려졌으나 때는 이미 고령이었고 직산 스스로도 환로에 선기를 거절하였다.

63) 조경에서 영남인 특히 남인에 대한 홀대는 극심하여,

肅宗實錄卷 47, 35年, 10月 “掌令洪景廉 上疏曰公道不行黨論日熾 嶺南人才 率多淹滯 李瀕崔桂廈 被選槐院 而臺臣擊去 李增諫家世文望 尤爲表著而終始枳塞道德之後 忠貞之裔 收錄絕少…” 나 英祖實錄36, 9年, 12月 “慶尙監司金始炯 上疏略曰 嶺南一路七十州 讀書自好之士 枯死巖穴者 不知其幾人 而猶以銜帶爲恥 不以屏廢爲憾 蓋其俗 自古然耳…而銓曹之收用 不過成爾鴻一人而止耳 至於金聖鐸 李榜 則終無檢擬之事 用舍之地不能奉行如此”라 했으니 西人 즉 老論만이 등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64) 戊申倡義錄 및 英祖實錄卷22, 5年 6月 左議政李台佐의 “…倡義主人表著者 前日廷臣所薦李萬數 亦宜調用”이란 奏가 있다.

厓公이 息山の 인품을 公案하길

내 侄은 단지 덕을 숨기었으나 능히 어버이 뜻을 어기지 아니했고 貞淑하나 絶俗치 아니했다. 富貴와 利達로 아마 능히 그 志操를 빼앗지는 못할 것이 다.⁶⁵⁾

고 하였으니 息山の 愛國衷情은 隱居해 德을 숨기고, 世俗을 등진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느 자리·어느 위치에서나 백성의 도리를 다하려 한 선비였음을 알 수 있다.

세째, 事大的 崇明思想을 批判

息山은 明이 망한 2년 뒤(1664년)에 태어났으나, 淸의 건국과 丙子胡亂으로 인한 피해는 임난에 비해 적은 편이긴 해도 저들에 대한 적개심에다 문화적 우월감이 겹쳐서 淸에 대한 반감은 대단하였다.⁶⁶⁾ 淸에 대한 반감이 크면 클수록 明에 대한 尊崇思想이 깊었던 것은 士大夫들에게는 공통심이었다. 孝宗의 北伐政策이 實效를 거두진 못했으나 淸에 대한 적개심은 고조화되었고 상대적으로 崇明思想이 깊어가던 중 尤菴 宋時烈의 遺命에 의해 그 高弟子였던 權尙夏의 주도로 1704년(숙종30년)에 충북 괴산군 청천면 華陽洞에 神宗(明)을 제사하기 위한 萬東廟를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건립 초부터 많은 대신들과 선비들의 반대가 있었고⁶⁷⁾ 후대에도 만동묘는 老論의 소굴이 되어 양민을 토색하는 민폐까지 자행하였다.

息山은 萬東祠議(筆寫本)을 저술해 老論側으로부터 陰陽으로 위협을 받았으며 그의 文集에 序文이 없는 것도 이와 관련된 사항이며⁶⁸⁾ 그의 후손이 이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⁶⁹⁾ 이같은 문제의 問答은 成晚

65) 文集卷 11, 書贈吳致重, “不求名而勇往之氣 不絶俗而有難奪只操”라 한 것은 息山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며

66) 息山先生文集附錄下, 祭文, “余輒曰吾侄但能隱不遠親 貞不絶俗 富貴利達 恐不能奪其志 嗟呼 此八字 足爲君萬代公案耶.

67) 李基白, 韓國史新論, 서울, 潮閣, 1978, p. 257참조.

68) 肅宗實錄卷 39, 30年 正月, 반대 이유는 淸國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 皇帝의 廟니 本國의 宗廟보다 우위에 설 염려, 즉 禮節上的 문제, 재정적 문제 등이 표면 이유였으나 반대자들의 공통적 심려는 조선이 신종황제를 제사하는 禮法이 어긋난다는데 본 뜻이 있었고 심지어는 王의 하문에 불응(崔錫鼎·尹拯등) 한 사람까지 있었으나 老論의 權尙夏 一黨에 의해 건립되었다.

69) 息山文集은 1798년 향토의 老德과 집안·인척의 성금으로 판각비를 마련, 1813년 立齋 鄭宗魯와 향토 선비들이 상주 北長亭에서 刊行하였다. 이때에 서문이 없는 것은 그 연유를 알 수 없으나, 文集中 卷 12, 露陰山房錄에 同鄉의 老論人 成晚徵(大君師傳)과의 만동사 문답(息산은 예에 벗어난다 반대)이 실렸으므로 하여 嶺湖南 士林間에 큰 물의가 있었고 (1852년의 尙州儒生呈單 溪山

徵의 아들 成仲舉(名爾鴻)와도 계속되는데, 仲舉가 萬東祠에 義가 없는
가고 물을 때 息山은 杜甫의 南池詩 ‘南池에 漢王祠 있어 / 終朝에 분망한
무당들 / 가무에 靈衣는 흩어지고 / 황폐하구나 옛풍속이여 / 高皇 역시 明
황이요 / 혼백은 오히려 정직하여 / 빈 언덕 위 아득한 데 祭物 歆饗 않으
리’ /⁷⁰⁾를 들어 漢王(漢高祖劉邦)이 한 때 漢中王이라 閬州에 있는 南池는
곧 漢中에 속해 漢王의 사당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는데
도 譏弄하였으니 이는 곧 唐代에 와 祠堂이 巫祝場이 되어 정결치 못해
缺禮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 萬東祠가 海外萬리에 設立되었으니 나는, 神
皇의 在天한 영혼이 祭物에 歆饗함을 즐기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하였으
니, 이는 곧 天子의 심돌에도 올라보지도 못한 下國의 陪臣인⁷¹⁾ 匹夫로서
天子를 제사함이 道理上 맞겠는가⁷²⁾하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非禮요 僭越
한 일이란 것이었다. 즉 諸侯의 陪臣이 감히 鄉閭에서 天子를 제사했다
말을 듣지도 못했고⁷³⁾ 또한 우리 땅·백성이 비록 皇朝의 판도에서 벗어
나지는 않았으나 理致로 추측컨대 神宗皇帝의 在天한 혼영이 어찌 海東萬
리를 眷顧하겠는가⁷⁴⁾는 것이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息山이 杜甫의 詩를 인용한 것은 祀祭에 크게 이상할
게 없는데도 기롱하는 일을 祀祭해서는 안 될 곳(또는 사람)에서 제사하
니 이는 기롱을 받는 것 이상의 큰 과오를 범한다는 대비적 강조의 수법
을 쓴 것으로 禮法에 없는 일임을 비판한 것이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朝鮮이 중국(明)의 판도에 들기도 했으나 理致上 神宗皇帝가 이땅의 제사

金相公 및 太學抵尙州鄉校通文 참조) 계속 老論이 집권하게 됨에 이 문제는 심
각하게 되어 그 부분을 改刊할 지경에 이르러(만동사 문답을 삭제하고 漢唐宋
의 治政事 넣어) 改版하여 溪山金相公에 跋文을 내려 食산의 문집이 세간에
널리 퍼지게 하려고 했으나 改刊된 문집은 현재 없으며 食산의 문집이 세상에
크게 유행치 못한 사정도 여기에 있다.

70) 1874년(고종 10년)에는 후손 李文九가 만동사의 그림을 공언하다 善山·尙州
의 유생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비명에 갔다 함(공격을 받은 사실은 1874년의
8월 11일자 善山儒郭璫通文 및 同年 8월 6일자 尙州儒李鎬服 李春用通文에 나
옴)

71) 文集卷 12, 露陰山房錄, “南有漢王祠 終朝走巫祝歌舞散靈衣 荒哉舊風俗 高皇
亦明主 魂魄猶正直 不應空坡上 縹緲親酒食”.

72) 李萬敷, 萬東祠議, “附魯東問答” “至於神皇 則特以下國陪臣 無一人天陞 少近耿
光之事…”.

73) 李萬敷, 萬東祠議, “令以匹夫 祭天子 其於道 何如也”라 하였으니 匹夫는 不國
의 陪臣인 宋時烈을 지칭한 것임.

74) 上同, “未聞諸侯之陪臣 敢祀天子於鄉閭者也”.

를 받지는 않을 것이란 言外에는 朝鮮은 결코 小中華가 아니란 自尊意識을 지닌 점이다. 비록 임난에 중국(神宗)의 恩義를 입었으나 朝鮮은 獨立國이란 뜻이니 萬東祠 設立은 禮法에만 벗어나는 게 아니며 朝鮮을 옥되게 하는 행위란 준엄한 비판이 되는 것이다. 이 역사적 준엄한 비판을 무릅쓴 이유를 息山은, 復讎大義를 앞세워 盛名을 훔치고 높은 벼슬에 올라 私黨을 廣樹하고 자기와 뜻이 다른 이(黨)을 모해하며 朝廷을 희롱하고 조정으로 하여금 人心을 懷亂시키고 國脈을 換散시킨 宋時烈的 私慾에서 빚어진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였다.⁷⁵⁾ 成仲舉와의 問答은 그의 父 成晩徵⁷⁶⁾ 代부터 萬東祠에 대한 持論을 굽히지 않았음을 증언함이니, 草野에 寒士로 묻혀 산 息山으로서는 不義앞에 不屈하는 지조를 지켰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朝鮮은 自朝鮮이라고 본 독립국의 자존심 강한 선비였음을 알 때 불과 145字의 간명한 글을 통해서 독자는 발견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네째, 朋黨의 弊害를 批判

학문면에서도 잠시 언급된 바 있지만 숙종대는 당재의 연속이었고 심지어는 역사까지 변조할 만큼 담쟁은 심각하였다.⁷⁷⁾ 조정의 뜻있는 자도 당쟁의 피해를 “黨論이 점점 고질화되어 온 나라가 불공대천지 원수로 얹혀져 一世를 통하여 품은 마음은 함께 아니할 마음 뿐이니 기상이 이같아서야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으리오!”라고 개탄하고 있다.

먼저 마음놓고 학문을 연구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을,

子新(星湖 李瀾의 字)이 또 묻기를, 退溪와 栗谷의 理氣說이 지금 시비가 분운한데 반드시 定論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息山이 대답해,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여러 번 의심하고 여러 번 변하여 비로소 所信이 미치는 곳이 있으니 이는 근래 黨論에 관련되어 남에게 말하기 어려움이 있다. 오직 理氣說은 학문

75) 上同, “附答客問”, “我東土地人民 雖不出皇朝之版圖 然理推之 神皇在天之靈豈有眷顧海動萬里者哉”.

76) 李萬數, 萬東祠議, “時烈當孝廟之世 執復讐大義…既以此盜竊盛名 致位台鼎 廣樹私黨 狀害異己 把弄朝權 使朝廷壞亂人心 渙散國脈…”.

77) 成晩徵은 遂菴權尙夏의 高弟로 黃江 八學士의 한 분이며 수암이 宋時烈的 嫡傳弟子니만큼 老論系에서는 막강한 지위에 있던 분이다.

78) 肅宗實錄卷 44, 32年 9월에 “九月壬申 司人李潛上疏 十八次而徑斃”라 한데 비해 肅宗錄補闕正誤卷 44에는 “己卯鞠鞠聽罪人李潛 連被十八次刊 不服死 潛前後受杖甚酷 而置對從容 辭氣不屈 潛以名家子 少有文名 詞致言論 有動人者”라 하였으나 한 사람(李潛은 星湖의 二兄)을 놓고 역사 기록이 이 만큼 판이해.

의 大頭腦라 이에 그릇되면 그릇되지 않는 곳이 없게 되니 심히 두려운 일이다.”⁷⁹⁾

고 하였으니, 이는 곧 학문 연구조차 黨論에 관계 되어, 그것도 息山의 이론이 退溪의 학설을 그대로 신봉치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自派黨內的 반대 여론에 부딪쳐 定論을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을 고발하고 또 비판하였다. 학문이 이미 黨爭의 도구화로 전락한 현실을 비판한 것이라고 또 비판하였다.

또한, 학자적 양심으로 自家說을 수립함에 朱子와 다른 견해를 표명하면 斯文亂賊으로 몰아 목숨까지 뺏는 참혹함이 있었다. 1701년 이후 영의정이 되었던 崔錫鼎이 禮記類編을 저술함에 朱子註의 大學章句를 따르지 않은 것을 老論측이 주자에게 득죄한 일이라 공격하게 되었다. “조정과는 관계없는 시비를 老論이 이로써 崔相의 권세를 쳐없애려”⁸⁰⁾ 당론으로 들고 나오자 肅宗도 처음은 문제를 삼지 않다가 끝내 禮記類編을 소각하기에 이르기도 하였다.⁸¹⁾ 더구나 老論측이 斯文(儒學)을 옹호한다는 핑계로 崔相을 배척함에,

朱子의 章句書는 천하에 두루하여 집집이 장서하고 사람마다 외며 蓍龜처럼 믿지 않음이 없으나, 天下의 義理는 무궁하여 무릇 사람의 見解가 不同한 까닭에 董槐나 葉夢鼎 등의 諸儒는 格致章의 不亡說이 있고 晦齋선생에 이르러서는 補遺書를 저술하여 董槐나 葉夢鼎 등의 說을 전적으로 주장하였으나 당시나 후세인이 이로써 諸賢을 罪라 한 것을 듣지 못하였고 또 이로써 朱子章句에 의심을 가진 자를 보지 못하였다. 이제 만약 禮記類編을 의심하여 능히 朱子의 章句를 바꾼즉 崔相을 대접하는 소이가 흡사 董槐 葉夢鼎 晦齋의 위에 두는 것 같다.⁸²⁾

고, 老論의 속셈을 신랄히 비판하였으며, 특히 주목할 일은 天下의 義理는

79) 肅宗實錄卷 35上, 27年 3月 “持平權慤 上疏曰黨論漸癩 舉一國而結不共天之讎 通一世而懷不並立之心 氣象如此 而國安得不亡乎”.

80) 文集卷 12, 鶴城問答, “子新又問退栗理氣說 至今是非紛紜必有定論矣 曰自少及老 累疑累變 始有所信及處 而此近來黨論所關 有難向人不說 性此是學問頭腦 於此誤則無處不誤 甚可懼也”.

81) 文集卷 12, 露陰山房續錄, “本不關朝廷是非 老論以此 爲擊去崔相欄柁 豈非黨論所使乎”.

82) 肅宗實錄卷 48, 36年 3月 “上出付頃年 崔錫鼎 所進禮記類編 十五卷于政院 仍不禮曹 並與頒賜臣僚者 而收聚燒火”

누구나 자기 견해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에서 息山의 학자적 자세·양심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하겠다. 이는 곧 朱子의 견해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되며 또한 程朱學을 追從만 하는 학자적 태도는 배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요 비판이기도 한 것이다.

다음으로 學問의 交流조차 저지하는 黨色에 대해 息山은 成仲舉⁸³⁾와의 문답을 통해 고발해 주었다.

仲舉가 말하길, 전번에 理氣問答한 說(註: 식산과 성중거와의)을 가지고 黃江(註: 영의정 遂菴權尙夏)에게 물으니 다 옳다고 하었다고 했다. 息山이 말하되, 賢이 나와 내왕하는 것을 黃江이 금하지 않던가?고 하니 仲舉가 말하길, 일찌기, 어른(註: 息山)과는 기왕에 同鄉이고 의심이 있으면 가서 묻는 게 해롭지 않겠음니까? 하고 물었더니 黃江이 대답해 말하길, 같은 내 집에 출입하고 나는 尤菴을 尊師로 모시었다. 어찌 尤菴을 배척하는 자와 더불어 교제하랴 하여 師門의 뜻이 이같이 자주 찾아 뵈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⁸⁴⁾

위의 문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息山의 理氣論이 尤菴의 嫡傳이던 權尙夏(栗谷學派 즉 畿湖學派의 중심인물)에게 옳다고 인정받은 사실과 학문적인 교류가 黨論에 좌우된 사실이다. 息山은 道東編을 저술하며 黨色을 초월해 東西人의 유명 학자의 說을 다 수용했으며 특히 편파성을 배제하려 少論의 朴弼基(朴世堂의 孫)에게 자문까지 구하고 있다.⁸⁵⁾ 이 같은 학자적 양심을 지녔던 식산으로서 黃江의 처사는 學問의 本意를 저해한 대상으로 응당 비판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朋黨의 弊害를 요약하면, 政治史에서 뿐 아니라 學問上에서도 막심하게 드러나, 학문의 연구 자체를 구속하고 自家說의 著述은 自黨이나 他黨이냐에 따라 朱子에게得罪다 斯文亂賊이다로 배도당하였고 심지어는 退溪나 栗谷學派에 속하면 두 분의 學說에 異論을 제기한다는 사실이 곧 사회에 발붙일 곳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後孫에게까지 막대한 出

83) 文集卷 12, 露陰山房續錄, “朱子章句 遍於天下 家藏人誦 莫不信如蓍龜 而天下之義理無窮 凡人之解見不同 故如董槐葉夢鼎諸先儒 有格致章不亡之說 而至眠齋先生著爲補遺之書 董槐葉之說 然未聞當時與後人以此 罪諸賢者 亦未見 以此 有致疑於章句者 今若疑類編之書 能易朱子章句 則所以待崔相 似在董葉晦齋之上也”

84) 成仲舉는 成爾晦의 字며 成晚徵의 아들이요 역시 權尙夏의 弟子이다.

85) 文集卷 12, 露陰山房續錄, “曰前將理氣問答說 問于黃江 俱以爲是矣 曰賢之與我來往 黃江不禁乎 曰曾問丈既在同鄉 有疑往問 無害乎 答教曰君出入吾家 而吾尊師尤菴 何可與斥尤菴者 交也 師門之意 如此 故不敢源源拜侯矣”.

世·生計에 위협을 자초하는 결과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위협을 무릅쓰고 息山은 “處士로서 完名했고 吾學의 宗匠”⁸⁶⁾이라 칭송받았으며 감히 집권파였던 老論의 주요 인물들과도 자신의 뜻을 당당히 말하고 非理를 과감히 고발·비판하였음은 息山이 實心思想에 바탕을 둔 까닭이며 이같은 태도는 食산이 倫理的 리얼리즘⁸⁷⁾에 철저했다고도 할 수 있다.

Ⅲ. 맺는말

息山 雜著에 나타난 批判精神의 고찰은 궁극적으로 작가 의식의 고찰이며 食산 문학의 한 특질을 살피는 작업이라 하였다.

이에, 지금까지 살핀 바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雜著는 어느 詩文의 體格에 꼭 맞지않은데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작자의 솔직 대담한 철학·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문학적 향취도 古文體에 비해 손색없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事象에 대한 新解釋으로 뒷 사람에게 평가받고자 쓴 글인 만큼 작자의 全人格이 숨김없이 드러났고, 그 주조를 이룬 정신이 批判精神임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批判精神의 諸樣相은 學問·文學·治道の 세 측면으로 대별해 고찰하였거니와 이는 곧 작자의 현실 인식 고찰이 되며 息山 雜文의 한 특질을 살피는 작업이었다. 이 세 측면에 나타난 비판 정신이 독자에게 준 문학적 효과를 요약하기로 한다.

學問面에서는, 取理와 取象, 自得과 私主, 爲己之學과 爲人之學에 나타난 食산의 비판정신을 고찰하였다. 息山은 당시 학계의 모순과 비리,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 비판하였는데, 특히 한국의 性理學이 洙泗學의 實踐儒學的인 本旨와는 거리가 멀게 理論 위주의 形而上學으로 치닫던 초창기에 息山의 학문적 태도는 務實을 중시하는 實心思想이 기저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차치하면 空論에 빠지기 쉬운 性理學의 한계를 극복하려 理氣說은 學問의 大頭腦라 전제하고, 人生·宇宙觀에 있어서도 現象(보이는것·

86) 續集 5, 與朴龍宮弼基, “道東一帙 其果披過否 既承商確之教 企佇不淺…”

87) 文集附錄上, 李瀾撰 ‘行狀’.

88) 金炳傑, 리얼리즘 文學論, 乙酉文化社, 1981, p. 49 “당시대의 非理나 歪曲 그리고 선과 악을 정직하게 증언하는 것은 윤리적 정신의 발로인 것이다”고 하여 윤리적 리얼리즘을 설명함.

作用)에서 本體(감춰진 것·原理)를 궁구해야 할 것을 주장했으며 學者의 良心으로 어느 學派·어느 朋黨에도 편승함 없이 自家說을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他黨으로부터는 물론 自黨內的 많은 학자들로부터도 生死存亡에 직결되는 위협까지 받으며 眞理를 위해 고군분투 하였음을 발견하였다.

학문면에 나타난 息山の 雜文은 그대로 식산 전 인격의 결정체였으며 그의 비판정신은 17세기 중엽에서 18세기 초엽까지 살다간 良心있는 한 知性人의 호소로 고발이며 개혁 의지였다. 살아서 大任을 맡아 功澤을 백성에게 베풀지 못한다면 뜻을 글로 남겨 후세인의 평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한 息山 자신의 선비觀이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더구나, 한국 實學의 大宗을 磻溪로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반계보다 42년 뒤에 태어나 經世致用學에 있어서는 그보다 18년 뒤에 태어난 星湖에게는 직접 간접으로 큰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식산의 雜文에 나타난 洙泗學에로의 복귀, 實心思想의 고취, 下學上達하려는 實學的 態度 등은 星湖는 물론 후대 經世致用學的 實學者에게 미친 영향이 지대함을 발견했을 때, 草野에 묻혔어도 玉돌일 수밖에 없는 큰 선비와의 만남을 식산의 잠문은 독자에게 제공하였다고 하겠다.

文學面에서는 필자의 이에 대한 논문이 있어 作爲的 作詩文에 대한 비판 정신만을 간략히 고찰하였다. 雜文에서 거론된 문제는 주로 위의 두 문제인데, 理勝之文으로서의 文學觀은 文學은 載道之器로 본 이래 근본적으로 부정당한 바 없는 동양의 문학관으로 息山 文學觀에 獨見이 있는 것은 아니나, 程朱學의 신봉 이후로 文學의 載道 역시 程朱의 철학 사상을 고집함을 식산은 비판하였다. 道學의 淵源은 洙泗學에 있으며 程朱 역시 거기서 道를 발견한 것이라 만 사람이 다 견해가 같을 수 없을진댄 꼭히 程朱가 해석한 道만이 儒學의 道가 아니란 견해다. 이는 곧 孔孟이 지녔던 道를 후세인은 각기 자기 견해로 해석해 文에 담을 수 있다는 지론이나, 萬象에 대한 해석이 程子 朱子의 견해에 국한되었던 영역을 크게 확대하였음을 특기할 수 있겠다.

또한 作詩文에 대해서도 文學을 위한 文學을 귀히 여기지 않았으며 詩興과 事物과의 만남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창작되는 詩를 중히 여겼고 文章 역시 載道之文으로 簡達함을 중히 여겼다. 특히 日常語를 일부러 피해 諷僻辭 하거나 韻多押하는 作詩文 태도를 비판하고 배척하였다.

息山の 文學觀이나 創作觀 역시 醇正文學을 고수하려는 그의 철학 사상에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그의 實心思想은 문학면에서도 기저에 깔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治道面에서는, 人材登用の 虛實을 비판하며 특히 조정이 取人함에 實이 아닌 取名함을, 人材培養의 失策을 비판하며 편파적이고 遠大之期가 없는 졸속성, 事大的 崇明思想을 비판하며 執權黨의 權力維持로의 事大性・自利의 도구화로 악용된 美名の 禮義, 朋黨의 弊害를 비판하며 國論의 분열 및 舉國民으로 하여금 명분도 없는 犬猿之化나, 특히 학문을 당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당시 사회의 모순・비리를 폭로 고발하였다. 이같은 息山の 비판 정신은 經世致用을 주장했던 그 학풍에 비추어 볼 때, 天災의 연속으로 국력은 쇠퇴할대로 쇠퇴한 내환을 안고서도 君王을 비롯한 爲政者들의 失政을 목도해야 했던 志士의 충정을 독자는 그의 잡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

한 마디로 洙泗學的 實踐儒學에 바탕을 둔 息山の 實心사상은 息山の 雜文에 批判精神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당시의 學問・文學・治道 면 등 제 분야가 안고 있던 모순과 비리, 타락과 병폐를 제거하고 구제하려는 實學者의 知性人・愛國志士의 전 인격과 독자는 직접 만날 수 있었다 하겠다.